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Weather

광주·전남 휴일 날씨

22(土)	23(日)
	
흐리고 비 7/17℃	비후 맑 8/15℃

News

- U대회 유치 적극 지원 ②
- 새우깡 등 먹거리 공포 ③
- 김연아 아쉬운 동메달 ⑧

Books

- 건축과 미술의 만남 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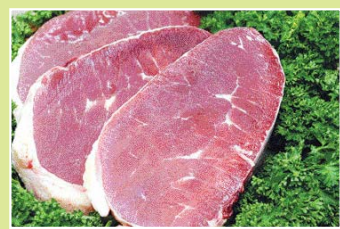
Entertainment



- 장나라 6개국 음반 발매 ⑧
- 한국영화 잇단 미국 진출 ⑨

Wellbeing

- 식품 탐구-쇠고기 ⑬



유망직업 전망 55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www.nabuniv.ac.kr

새로운 미래를 위한
 전남과학대학
 www.jnsci.ac.kr

“영산강 통해 기아차 수출”

광주 방문 이 대통령 대운하 추진 의지 밝혀

“수질 개선·벚길 복원 등 정부 차원 추진 할 것”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기아자동차 물류를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영산강 벚길 복원 사업) 정부 주도로 추진하겠다”며 영산강 벚길 복원사업에 대해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대선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사업과 맞물린 영산강 벚길복원 사업을 민간 주도가 아닌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힌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아차 광주공장 오찬장에서 박광태 광주시장으로부터 “남도의 젓줄이며 호남인의 정서와 비전이 깃든 영산강 벚길 복원 사업을 추진해달라”는 건의를 받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서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열

린 환경부 업무보고에서도 “지난번 선거 때 영산강 하류의 수질을 시험해 봤는데 4대 강 중에서도 미안할 정도로 오염이 심했다”면서 “유명한 화가들이 영산강 그림을 많이 그려 영산강에 대한 인상이 좋았는데 실망을 많이 했다”며 아쉬워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환경부와 국토해양부가 투입하는 예산이면 최고의 수질을 자랑하는 4대 강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는데 어떻게 수질을 보전하는 것인지-”라며 영산강 운하사업을 비롯한 대운하 사업 추진 의지를 우회적으로 표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두 부처의 향후 8~9년 예산이 20조원으로 1년에 2조원 가까운 막대

한 예산을 쓰면서도 영구 대책을 못 만드는지 아쉽다”며 수질보전 대책 마련을 간접적으로 주문했다.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으로 그동안 환경과 과 논리와 개발 방식에 대한 논란으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영산강 벚길 복원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또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4·9 총선’을 앞두고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대운하 건설에 대해 우회적으로나마 강한 추진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수차례 대운하를 건설하면 물 부족 문제 뿐 아니라 수질 문제도 함께 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역설해 왔다.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 앞서 가진 티타임에서도 영산강 수계도를 지켜본 뒤 “나주에는 옛날에 배가 다녔다는 것을 의미하는 등대 등 강 주변에 역사들이 많아서 개발하면 관광지로 좋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李대통령 광주 기아차 방문

이명박 대통령이 21일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을 방문, 박광태 광주시장(왼쪽부터), 류우익 대통령실장, 이동관 청와대대변인,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과 함께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얘기를 나누고 있다. <광주·전남 사진기자단>

민주 ‘여론조사’ 곳곳 분쟁

탈락후보 “조사기관 유착” 상대 후보 고발

“불법 문자메시지 전송” 재심 신청 잇따라

통합민주당 공천자 결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여론조사’와 관련해 각종 의혹과 문제제기가 잇따르면서 민주당의 막판 공천작업이 한 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혼돈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여론조사 경선에 탈락한 후보가 ‘여론조사가 조작됐다’며 상대후보를 검찰에 고발하는가 하면, 여론몰이를 위해 불법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혐의로 조사를 받는 후보가 줄을 이으면서 각종 부작용이 예고되고 있다.

해남·진도·완도 공천을 신청했다가 여론조사 경선에서 민화식 전 군수에게 패해 탈락한 이영호 의원은 21일, ‘여론조사 기관과 상대후보가 유착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서울 남부지법에 ‘후보 당선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의원은 상대 후보의 측근이 민주당 경선 실무관계자에게 법으로 금지

된 항을 제공했으며, 여론조사 질문지가 상대후보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도록 작성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 20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 후보는 이와 관련 “당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도 이날, ‘광주 북구를 지역에서 여론조사 경선이 진행되던 지난 16일 김재균 전 구청장측 선거운동원이 선거구민들에게 전화여론조사 참여를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입내한 전 광주고검장측으로부터 접수, 조사에 착수했다.

김 후보는 이와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선거 사무소와 관련 없는, 단순 지지

자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앞서 유종필 민주당 대변인과 조영택 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장이 맞붙은 광주 서구갑에서는 여론조사 경선이 한창 진행되던 지난 17일, 특정 후보가 당선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가면서 여론조사가 전격 중단됐다. 공천심사위원회는 이와 관련 두 후보를 대상으로 21일 오후부터 여론조사 경선을 새로 시작한다는 대책을 발표,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을 자초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광주시 선관위는 21일 오후 민주당 서구를 공천자 김영진 후보측에 대해 ‘여론조사를 앞두고 여론몰이를 위해 문자메시지를 불법으로 대량 발송한 혐의가 있다’며 광주 서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 했다. 민주당 공천심사위는 현재 광주 서구 을 지역에 대한 재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 서구에서는 4배수 후보압축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김종식 전 서구청장이 “여론조사 질문서에서 10년 전 직함인 경제통상국장을 사용하는 바람에 탈락했다”며 ‘여론조사 조작’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여론조사 경선에서 탈락한 한 후보는 “여론조사 자체가 불신을 받는 상황에서는 그 누구도 여론조사 결과에 승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1인 국민소득 2만달러 돌파

지난해 2만45달러

실질 GDP 5% 성장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사상 처음으로 2만달러를 넘어섰다. 1995년 1만달러를 돌파한 후 12년만이다. 수출 호조에 힘입어 경제성장률도 당초 예상을 큰 폭으로 웃도는 5.0%를 기록했다. 그러나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교역조건이

악화하면서 실질 GNI 성장률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크게 밑돌아 체감경기는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07년 국민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2만45달러(한화 1천862만6천원)로 전년의 1만8천401달러보다 8.9% 증가했다.

1인당 국민소득은 높아졌지만 연간 실질 GNI는 전년에 비해 3.9% 증가에 그쳐 실질 GDP 성장률보다 낮았다. /연합뉴스

3월 22일
 피부미용
 피부미용
 피부미용